

가사 《조국찬가》의 사상예술적특성

류 명 호

가사 《조국찬가》는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감정과 평이하면서도 철학적인 시적표현의 활용, 끝없는 추억과 편상을 불러일으키는 은은하면서도 사색적인 선률형상 등으로 하여 선군시대 가사창작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304페이지)

가사 《조국찬가》의 사상예술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가사에 반영된 생활감정이 매우 소박하고 진실한것이다.

가사에는 그 어떤 요란한 정치적표현이나 현란한 수식사가 없다.

이 가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로 되어있다. 그러면서도 생동하고 생활적인 표현으로 어머니와 고향, 조국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지고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고 고향이 있다. 커서 영웅이 되고 또 박사가 되었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해도 생의 뿌리가 내린 고향에 대한 추억은 잊혀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 어머니, 그 고향집이 조국이라고 노래한 《조국찬가》는 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정서, 섬세한 생활감정을 그대로 시화함으로써 가사의 견인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숙한 형상기교를 보여주었다.

가사는 정든 집뜨락에서 뿌리내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점차 땅과 바다를 비롯한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슬기롭고 용감하며 순결한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시키고있다.

가사는 작은것으로부터 점차 큰것으로, 낮은것으로부터 높고 거창한것으로 사상감정의 폭이 확대되고 격동적이면서도 그지없이 소박하고 진실한 말들로 되어있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구름우엔 참매날고 목란꽃핀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가사 《조국찬가》의 구절들은 뜻이 명백하고 정서적색깔이 뚜렷하며 서술식문장이 없다. 알기 쉽고 명백하면서도 사상감정의 핵을 뚜렷이 살리는 최대의 함축된 시적표현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긍지를 가슴뿌듯이 안겨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국조인 참매를 국화인 목란꽃과 함께 노래한것은 매우 이채롭고 인상적이며 민족적이다. 몸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부리와 억센 발톱, 매우 빠른 속도, 령리하고 결쾌있는 기질, 균형잡힌 몸매와 밝은 눈을 가지고있는 참매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사람들속에서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졌을뿐아니라 로동당시대에는 국조로서 우리 인민들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기개, 새 세기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우리 인민의 승리적기상을 나라의 국조, 참매를 통해서도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게 된다.

가사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4절에서는 힘있고 박력있고 숭엄한 시어들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한 힘과 영웅적인 모습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석출밖에 안되는 한개 절에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알기 쉬운 말로 오늘의 우리 조국, 선군조선의 위용을 유감없이 노래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조국의 창창한 래일과 인민들이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갈 앞날을 확신성있게 그려보게 하는 가사 《조국찬가》는 평범하고 소박하고 생활적인 시어들로 이루어졌다.

가사 《조국찬가》는 어휘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간결하면서도 세련되고 풍부한 련상이 떠오르게 할뿐아니라 알기 쉬우면서도 심오한 생활철학이 있는, 설명이 없으면서도 뜻과 정서적색깔이 명백한 민족성과 인민성이 짙은 시어들로 주옥같이 다듬어진 명가사이다.

가사 《조국찬가》의 사상예술적특성은 다음으로 서정구조가 이채로운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사는 2~3절로 구성되지만 가사 《조국찬가》는 5개 절로 되어있다. 물론 지난 시기의 가사들을 보면 5개이상의 절로 되어있는것도 있지만 가사의 한개 절이 보통 4행조적으로 되어있으며 한개 절이 짧은 3개 시행으로 되어있는 가사는 없었다.

가사 《조국찬가》의 내용적인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적해명을 주면서 이 가사의 전반적인 사상정서에 대하여 암시해주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밝히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

을 노래하고있다.

셋째 부분에서는 창공에 우리 국기를 높이 날리며 약동하는 젊음으로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량만과 끝없는 자부심,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 심장을 바쳐갈 불타는 열정과 드높은 의지를 구가하고있다.

가사 《조국찬가》의 매 절의 구성을 보면 전단은 조국에 대한 진실한 생활감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치고있으며 후단은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주정토로 한껏 터치고있다.

1절에서는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조국애의 뿌리에 대하여 노래하였다면 2절에서는 어머니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구가하고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 억센 기상을 반영하고있으며 4절에서는 위대한 당을 따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떨쳐나선 오늘의 시대정신, 어머니조국에 심장을 다 바쳐갈 드높은 열망을, 5절에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조국을 무궁토록 빛내가려는 맹세를 특색있게 노래하였다. 특히 매 절마다 인상적인 생활세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시대의 본질을 담고있는 시적세부들로 서정조직을 함으로써 추상적이고 딱딱하지 않으며 다정다감하면 서도 심오하고 폭넓은 사상정서를 안겨주고있다.

가사 《조국찬가》의 서정구조에서 이채로운것은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단 한줄의 짧은 종렴구로 가사의 사상정서적핵을 명백하면서도 장중하게, 여운이 있게 강조하는 원숙한 형상기교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처럼 가사 《조국찬가》는 1절부터 5절까지 매 절이 생활론리와 형상론리에 맞게 순차적으로 잘 짜여있다.

가사 《조국찬가》의 사상예술적특성은 다음으로 웅건하면서도 숭엄한 정서에 맞는 운률을 보장한것이다.

가사 《조국찬가》의 운률을 보면 첫 시행에서는 음절수에 의한 음절결합을 4·4조의 반복으로 하고있으나 둘째 시행과 셋째 시행에서는 7·5조와 6·5조로 하고있다.

4·4조와 4·4조의 연속반복으로 되어있는 매 절의 첫 시행은 운률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내용전개도 다양하게 할수 있는 음절결합으로써 7·5조와 6·5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운률을 보장해준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구름우엔 참매날고 목란꽃핀 이 강산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매 절의 첫 시행의 음절수가 4·4조와 4·4조로, 때로는 4·4조와 4·3조로 이루어졌으나 그 기본음수율은 4·4조와 4·4조로서 음악적인 흐름새가 지내 급하거나 처지지 않게 되어있다. 이것은 생활적이면서도 숭엄한 가사의 내용에 맞는 운률로서 사람들에게 조국을 두고 깊이 사색하게 여운을 남긴다.

한편 2행과 3행은 7·5조, 6·5조로 그 형태를 변형시키고있다.

그리하여 가사의 운률을 매 시행마다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한것이 아니라 가

사의 사상적내용에 맞게 정서와 굴곡을 주고 음악적흐름새가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가지고 흐르도록 하였다.

가사 《조국찬가》는 생활적이면서도 숭엄하고 깊이가 있는 내용에 맞게 운률의 진폭도 크고 유연하면서도 폭넓게 흐르도록 조직하는데서 새로운 형상기교를 보여주고있다.

가사 《조국찬가》의 사상예술적특성은 다음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과 가치를 가질수 있게 형상한것이다.

가사 《조국찬가》는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단계에서만 부를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이 가사는 그 주제의 영원성으로 하여, 그 사상성과 예술성결합이 완벽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언제나 즐겨 부를수 있게 되어있다.

오늘만 부르고 래일에는 부르지 않는 노래라면 그런 노래는 큰 가치가 없다.

가사창작에서 생활이 제기하는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담는다고 하여 시기성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사를 창작하는데서 시기성만 내세우면 시대와 생활을 폭넓게 일반화하는 내용을 담을수 없다.

인민이 영원히 부를수 있는 노래,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퇴색과 진부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길이 전해지는 노래라야 진실로 국보적인 작품,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되는것이다.

가사 《조국찬가》는 주체적인 가사창작의 미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구현한 전인민적인 송가로서 위대한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감정을 참으로 진실하고 감동깊게 노래한 시대의 명작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낳은 국보적인 명작으로, 가사창작의 귀중한 본보기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가사 《조국찬가》에 구현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학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참신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갈 때 가사창작을 비롯한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문학예술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게 될것이다.